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생의 피로 변해

구세주를 만나 기뻐하지 않으면 구세주를 모르는 사람

천국이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동산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영이 하나님인고로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따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천국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은 오늘날 이긴자요, 이제그대로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고로 메시아 구세주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메시아 구세주요, 바로 이긴자요, 천국이 바로 감람나무요, 감람나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감람나무가 3단계에 거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기신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 세 번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을 숨겨서 키워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서도 삼시세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 상에도 이제그대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옮겨진 걸로 삼시세판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은 완전히 숨겨졌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제그대로 완전히 감추고 숨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

을 모신 사람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그대로 여섯 번째 이기신 하나님을 또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숨겨 놓는 가운데 일곱 번째 이기신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데 이제그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경 목시록에 가서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하늘의 모처에 숨겨서 키우는 것은 붉은 용 마귀가 그 아들을 삼킬까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곧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모처에 다 숨겨놓고 키우는 곳이 곧 밀실인 것입니다. 밀실에서 이와 같이 키우는 것은 마귀의 세상에서는 마귀가 하늘의 사람들을 모조리 해쳤던 고로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는 이제그대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해칠까봐 숨겨놓고, 감춰놓고 키웠던 것입니다.

격압유혹에서도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삼신이 역할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바로 "내 백성이 밀실에 들어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심한 풍랑을 피하여 밀실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려면 바로 하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이제그대로 마귀의 화살을 피하여, 마귀의 공격을 피하여 밀실에 숨어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능력

여러분들 이제그대로 태풍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올 듯 불어올 듯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다가는 비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해마다 태풍 불 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장마 질 때 장



구세주 조희성님

마 안 진다고 얘기하고, 태풍 불 때 태풍을 막는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는 건 왜 논하냐면 바로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이긴자 하나님의 위대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고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그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라고 쓰여 있는데 만국을 다스릴 자면 바로 굉장한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고로 그런고로 전 세계의 기운을 전부 한국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운이 한국으로 이제 몰려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에 구세주가 있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한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태풍도 한국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1년 전에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한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 매년 풍년 들게 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유사 이래, 인류역사 이래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태풍을 못 불어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1년이면 태풍이 20번 이상 불어오지만 대한민국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어야 늙지도 죽지도 않아

이 정도령 구세주가 나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해마다 이제 3번, 4번, 5번씩 태풍이 불어서 다 지어 놓 농산물이 전부 쓰러져가지고 물에 잠겨서 못 먹게 되어 가지고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령 구세주가 나온 이래 이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정도령

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 병신 중의 병신이고 바보 중의 바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구원론과 구세주론과 선악과론과 생명과일론과 이제그대로 부활론과 안식일론과 말세론과 천국론을 세밀하게 잘 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우치좌지하고 있는 걸 보아도 분명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고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세주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제단 오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걸음걸이도 이제 신바람 나게 걸음을 걸어야지 이제그대로 그 걸음걸이가 다 시들어가는 풀처럼 겨우겨우 몸을 잡기 못하는 정도의 걸음을 걷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병 걸리고 늙느냐면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늙지도 않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갖도록 여러분들에게 구원론과 구세주론을 논하고, 또한 이제그대로 완전히 영생의 영이 되는 이슬이 내리는 걸 보여주시고 하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확신을 이제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

이 영생학을 배우는 사람의 눈동자가 썩은 동태 눈깜마냥 희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희망에 찬 눈동자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에 차 있는 눈동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피가 영

생의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생의 피로 바뀌면서 영생의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거 생긴 대로 노네." 하는 말이 있는데 각쟁이처럼 생긴 사람은 각쟁이 노릇하고 악하게 생긴 사람 악하게 노는 것입니다. 각쟁이처럼 생긴 사람이 왜 각쟁이 노릇을 하나면 바로 평상시에 각쟁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각쟁이 피로 변해 가지고 각쟁이 얼굴과 각쟁이 몸으로 변한다고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영생학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피로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여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불심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될까봐 마귀새끼가 자기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 거짓말 해 가지고 모든 인간을 죽이는 작전을 가지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고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영생을 할까봐 마귀새끼가 이제그대로 자기를 믿으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전부 죽이려는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1992년 8월 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형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8) 에서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야곱의 하나님

(8) 에서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중에게 각각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기도 중에 보름달 속에 환하게 웃던 형수 마할랏을 기억하고 그녀의 조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중과 그 자식들을 제일 먼저 세계 하고,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라헬과 단, 요셉을 뒤따르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들 단을 맨 뒤에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칠 경우를 대비하여 장자상속을 받은 단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¹

¹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한민족의 시조 단군)의 핏줄을 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고로 성경에서조차 '단'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 했습니다. '단'을 드러내면 마귀가 정육과 혈기를 앞세워 넘어뜨려 피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안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 자신의 정결한 혈통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1절을 보더라도 출애굽 당시



'야곱과 그의 처자식이 에서 앞에서 명에 엎드려 절하다.' _ Cornelis Cornelisz. van Haarlem (Dutch, 1562-1638), Meeting of Jacob and Esau, 1594 작

에서가 압박감 가까이 이르자 자신 앞에 수백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수십 마리의 낙타와 황소, 나귀가 행렬을 이룬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본 에서는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줄지어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누구의 자식들이기에 이토록 귀여울까. 또 누구의 아내들이기에 이토록 큰 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단지파를 복족을 맡은 일명 북군이라고 하고 이동할 때 맨 후미에 두고 특별히 보호하였습니다.

복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동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타오르던 불길이 언제 있었던 양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보이자 야곱은 일곱 번이나 땅에 꿇어앉아 절을 하면서 에서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자,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5-7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중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야곱은 에서 앞에 자기 가족들을 차례로 인사를 시키고 난 다음, 예물을 준비해 온 가족들을 에서에게 드리고자 하였습니. 에서는 자기에게도 많은 가족이 있으니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앞세우고 에서를 맞이함.' _ Francesco Hayez, Giacobbe e Esau, 1844 작 http://www.arte.it/foto/icone-romantiche-i-capolavori-di-francesco-hayez-alle-gallerie-d-italia-481/17

"나를 기쁘게 해 주시려거든 형님, 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에서는 동생의 간청에 못 이겨 그 예물을 받았습니.

하지만 야곱이 보기에 형 에서가 지난 날에 있었던 장자권리로 인하여 응어리진 감정을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처자와 본인을 번갈아 보면서 차마 처자식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의 아비를 해칠 수 없었는지 꼭 참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좀 더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형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고향 벰셀세베에 가는 것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또 형 에서의 권유대로 세일로 따라가서 예뻐 부락에서 살게 되면 형 에서의 아내 유딧과 그녀의 친척 헛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더 염려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2-17절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웠은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신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향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안젤라